

문화일보

munhwa.com

[인물]

게재 일자 : 2012년 07월 24일(火)

조각국악... 한국 문화, 올림픽 물들인다

신미경씨 런던에 비누 기마상 그룹 '비빙' 퓨전 가면극 공연



2012 런던올림픽 개막을 3일 앞두고 런던 중심가에 한국 작가가 세운 초대형 비누 기마상이 세워지고, [외국인들의](#) 귀를 파고드는 퓨전 국악이 [연주](#)됐다.

비누 조각가로 [유명한](#) 신미경(45) 작가는 23일(현지시간) 올림픽 개막을 앞둔 런던 중심가 캐번디시 광장의 빈 좌대에 비누 1.5t으로 만든 높이 3.5m짜리 초대형 비누 기마상을 [설치](#)했다.

당초 이 좌대 위에는 컴벌랜드 공작의 기마상이 설치됐지만 1868년 철거돼 빈 채로 방치돼 왔다. [동상을](#) 비누로 재현하는 이 프로젝트명은 '비누로 새기다: 좌대 프로젝트(Written In Soap:A Plinth [Project](#))'다. 흙으로 조각상을 만든 뒤 [살리콘](#) 등으로 주형을 뜯 뒤 크레인을 동원해 끓는 비누를 한 번에 붓는 고난도 작업을 거쳤다. 신 작가는 "역사를 거꾸러 거슬러가는 작업"이라며 "유물이 현대 [미술](#)로 변하는 과정을 어떻게 조망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다"고 밝혔다. 기마상은 이곳에 1년간 전시된 뒤 실내(빅토리아&앨버트 [미술관](#) 조각실)로 옮겨진다.

한편 한류를 내세운 퓨전 국악 [공연](#)도 런던 [문화](#)중심지에서 펼쳐졌다. 영화음악 [감독](#)으로 유명한 장영규 씨 등 음악인 7명이 2007년 결성한 국악 프로젝트 그룹 비빙은 23일 오후 유럽 최대 [예술](#) 복합 [기관](#)인 런던 사우스뱅크센터 내 퀸엘리자베스홀에서 '이면공작'이라는 타이틀의 퓨전 국악 공연을 펼쳤다.

이날 연주한 '이면공작'은 가면극이 소재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가면극 형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예진수 기자 jinye@